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 공유 및 자료 수집
2. 출장목적: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 공유 및 자료 수집을 위한 ASEAN 사무국 방문
3. 출장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 출장기간: 2008년 10월 26일 ~ 29일(3박 4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신유선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10. 27(월)	2:00~3:00	아세안 사무국 개관 및 FTA 체결 현황 (면담자: Ahmad Syaukat)
	3:00~5:00	아세안 사무국 FTA 관계자 면담 - ASEAN의 FTA에 대한 공동 입장 - ASEAN의 FTA로 인한 국내외 상황 변화 및 반응 - ASEAN의 FTA 대응 전략 및 국내 대책 등 (면담자: Anna Robeniol)
10. 28(화)	2:00~5:00	아세안 사무국 FTA 농업분야 관계자 면담 (면담자: Somsak Pippopinyo)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 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ASEAN 사무국	Assistant Director for FTA Cluster	Ahmad Syaukat	(62-21) 7243371
	Director for FTA Cluster	Anna M. Robeniol	(62-21) 7243372
	Assistant Director of Bureau for Economic Intergration and Finance	Somsak Pippopinyo	(62-21) 7243372

II. 주요 출장 결과

1. 아세안 사무국 개관

- ASEAN은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 최초 회원국들에 의해 설립되었음.
 -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8일,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 그리고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 ASEAN 선언문(Declaration)에 의하면, ASEAN의 목적과 지향점은 1) 동남아국가들의 평화·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발전, 문화발전을 촉진시키고, 2) UN 헌장(Charter)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국가들간의 법칙과 정의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것임.
- ASEAN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회원국가들간의 무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음.
 - 1967년과 1960년대 초 회원국들의 총무역 규모 중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5%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ASEAN

- 경제협력 계획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음.
- 이 중 하나가 1977년의 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인데, ASEAN의 경제무역을 위한 관세 특혜를 조정한 것임.
 - 10년 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3차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 회원국들간의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특혜관세협정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음.
- 1992년 싱가포르의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구상의 시초가 되는 경제협력강화체제 합의서(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가 채택되었음.
 - AFTA의 전략적 목적은 하나의 단일생산체로서 ASEAN 지역의 경쟁력 우위를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음.
 - 회원국들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는 경제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
 - 1995년 방콕의 제 5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FTA 실현을 위한 시간표를 처음의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는 확대경제통합어젠더(Agenda for Greater Economic Integration)가 합의됨.
 - 2002년 1월 1일, ASEAN은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중대하나 진전으로서, AFTA에 합의한 6개 당사국들은 그들 간의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를 0~5%까지 인하하였음.
 - 이들 6개국은 ASEAN 총무역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AFTA에 대한 합의서명은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6년이나 앞당겨진 결과인데, 이는 관세인하 스케줄이 2배나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임.
 - ASEAN 역내 무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3%에 준하는 정도로 인하되었음.

-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ff) 조약으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2006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그리고 캄보디아는 2010년에 AFTA 참여를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됨.
- 1997년, ASEAN 지도자들은 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면서 지역내의 경제통합을 더욱 밀착시키는데 목적을 둔 ASEAN Partnership in Dynamic Development를 주창했음.
 - ASEAN Vision2020 선언문에서는 안정적이고 번영된 그리고 고도로 경쟁력을 갖춘 ASEAN Economic Region을 창설하려는 결의를 다졌고, 그 속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과 공평한 경제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교류와 더불어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자 하였음.
 - 1998년에 채택된 Hanoi Plan of Action은 ASEAN Vision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행동계획으로 반영되었음.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은 국가간 주요 고속도로와 철로네트워크, 해양교통을 위한 주요항구와 해양항로, 내륙의 수로교통과 주요 민간항공연결망을 구성하는 초ASEAN 교통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ASEAN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산업, 서비스, 금융, 농업, 산림, 에너지, 교통, 통신, 지적재산, 중소기업, 여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ASEAN Vision 2020은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ASEAN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외부지향적 ASEAN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ASEAN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적 연대를 도모함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왔고,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속하게 될 것임.

- 1992년의 ASEAN 정상회담에서 "점점 독립적 세계로의 추세 속에 ASEAN은 대화파트너들(dialogue Partners)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ASEAN과 대화파트너들과의 회담은 외무장관급 수준의 연례회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ASEAN 회원국가들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Asia-Europe Meeting(ASEM), East Asia-Latin America Forum(EALA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ASEAN의 대화 파트너로는 호주(Australia), 캐나다(Canada), 중국(China),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인도(India), 일본(Japan), 한국(Korea), 뉴질랜드(New Zealand), 러시아(Russia), 미국(United States),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있음.

- ASEAN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ASEAN 국가정부수반 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이며, 외교관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ASEAN은 주요 도시별로 외교담당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음.
 - 또한 전문화된 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기구가 있음.
 - ASEAN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ASEAN-EC 경영센터(ASEAN-EC Management Centre), ASEAN 에너지 센터(ASEAN Centre for Energy), ASEAN 지진정보 센터(ASEAN Earthquake Information Planning Centre) 등
 - 관련된 목표와 목적을 위한 협력활동 기구도 발전시키고 있음.
 - ASEAN 상공회의소(ASE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SEAN기업포럼(ASEAN Business Forum), ASEAN 관광협회(ASEAN Tourism Association), ASEAN 석유협의회(ASEAN Council on Petroleum) 등

2. ASEAN의 FTA 체결 현황

- ASEAN은 역내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와 아시아 지역 내의 지역경제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ASEAN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의 FTA를 가장 먼저 타결하였음(2004년 10월).
 - 한국과는 2006년 8월에 상품협정을 타결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서비스무역협상을 타결하였음.
 - 일본과는 2007년 11월에 EPA를 타결하였고, 인도 및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주의에 적극 가세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하였음.
 - 싱가포르가 2000년 이후 체결한 FTA는 12건임.
 - 그밖에 중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태나다, 멕시코 등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EU 등과는 협상을 검토 중임.
 - 최근에는 페루(2007년 9월), GCC(2008년 1월) 등과 FTA를 타결하였음.

- 태국은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2006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 페루, EFTA, 미국 등이며, 중국, 파키스탄, 바레인, 칠레 등과의 FTA도 검토 중임.
 - 말레이시아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호주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임.

3. 동아시아 FTA 대한 ASEAN의 입장

- ASEAN은 APT(ASEAN Plus Three: APT.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와 동아시아 FTA(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EAFTA),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특히 ASEAN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제를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APT의 심화, 확대 과정에서 ASEAN의 주도력과 정체성의 훼손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ASEAN은 동북아 국가들의 역내 지역통합 논의에서의 지위 향상으로 인한 ASEAN의 상대적 지도력 저하,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하여 EAS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EAS 추진으로 EAS 조기 등장을 막지 못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EAS 참여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EAC 또는 EAFTA 건설에 대한 ASEAN의 기본 입장은 ASEAN+1 방식이고, 현재는 ASEAN+3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ASEAN+6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ASEAN+1, ASEAN+3, ASEAN+6 등 어느 방식이든 ASEAN이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
 - ASEAN은 이러한 과정에서 강제적인 시장개방을 지양하며, 국가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음.
 - 특히 한국과 일본의 농업부문 개방에서 민감품목이 될 쌀에 대해서 그러함.

- EAC 또는 EAFTA 건설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들의 주도권 행사 문제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견제하려는 의도임.
 - ASEAN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AFTA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ASEAN을 위해 ASEAN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은 제1차 EAS에서 EAC 건설에 ASEAN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ASEAN+3는 EAC 건설에 중심 부분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 ASEAN+1 형태의 FTA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
 - ASEAN은 중국, 한국, 일본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음.
 - ASEAN은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ASEAN-미국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하였음.
 - ASEAN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FTA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들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EAC나 EAFTA 회원국을 ASEAN+3로 한정시키기보다는 ASEAN+6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ASEAN은 2003년 ASEAN+3에 인도를 초청하고, 200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초청한 바 있음.
 - ASEAN은 역내 패권경쟁 국가들에 대한 견제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협력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지역 패권경쟁 때문에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국가 연합인 ASEAN이 계속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부정적 견해가 많음.

- ASEAN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 강대국(중국, 일본, 인도 등)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ASEAN이 FTA 등과 같은 시장개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으로는 닭고기, 해산물, 쌀, 팜유, 설탕, 옥수수 등이 있음.
 - 특히 쌀의 경우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서는 70~90%의 생산 증산 계획이 있음.
 - 닭고기는 태국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는 ASEAN 국가들과는 달리 포장기술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두드러진 증산 계획은 없음.
- ASEAN은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인 ASEAN+1 형태의 FTA를 시작으로 ASEAN+3 형태, 더 나아가서는 ASEAN+6 형태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고 있음.
 - 자칫 ASEAN+1 형태의 FTA가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ASEAN은 농업부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 부문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라고 언급함.
 - 현재 ASEAN+1, ASEAN+3, ASEAN+6 등 FTA 관련 연구나 보고서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데, 이는 한국과는 달리 국민(농민)들이 시장개방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발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ASEAN은 동아시아 FTA 추진에 있어 검역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간 충분한 대화 및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동아시아 FTA에서 ASEAN은 국가 간 경합되는 품목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